

# 조선과 미 핵 대치 난국을 위하여

## 긴급 선언

### 세계평화선언

전쟁과 평화는 역사 진전을 추동하는 양대 주축이었고 민족과 국가는 전쟁과 평화의 양대 원동력이다. 근 백 년 동안 우리는 무수한 전쟁을 목격해 왔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교훈은 우리에게 이제는 "칼을 녹여 쟁기로"라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방지해야 된다는 평화구조를 실현해 왔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패권적 사고는 핵대국으로 발전하였고 또 이를 독점해왔다. 이로 인해 작은 나라는 핵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포적인 자위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세계각지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전화를 피하기 위한 난민파는 재난이 되고 있다. 인류의 대를 잇는 복수극의 재앙, 그리고 지구의 유한한 자원의 파괴와 낭비가 낳은 기후와 생태의 이변은 지구와 인류가 천재인화로 인해 함께 살기나 죽기나 중요한 관건적 시기에 와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옛 말에 물극필반이라 했습니다. 무력문명이 극에 달하면 심력문명(心力文明)으로 전환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긴박하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선택은 전세계 모든 자유민의 달려있습니다.

인류는 "에덴"에서 원죄를 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만국의 민중들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사방으로 도망갔다. "실낙원"에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은 목숨으로 불에 지짐은 지짐으로"의 비극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신의 계율은 이른바 애국주의의 이름으로 세계평화를 구실로 패권다툼을 자행하고 있어 보편적 가치와 기본적 인간성인 정의와 선량함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세계화속에 자유민으로서 중국과 인도의 갈등 대립 이후 미국과 조선의 대립이 해결불능 상태에 빠졌고 핵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쟁을 망각하면 위험이 닥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나약한 작은 나라는 핵개발로 자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쉽지만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진 못한다. "호전적인 자는 패망하기 마련이다."는 대국이든 소국이든 지구와 인류가 직면한 생존의 재앙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구 전체의 안위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고 지구를 아끼는 모든 자유민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인도적 자구책으로 함께 외칩시다.

1. 이번 위기를 신형 아시아의 남북 전쟁이 일으킬 수 있는 전쟁이다. 일단 촉발되면 국지전일지라도 해상과 육상의 패권 쟁탈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과 미국의 핵전쟁 심지어 제 3차 세계대전까지 번질 수 있다.

2. 평화는 인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세계화 속의 인류 안전은 대국이든 소국이든 혹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개개인이든 생존권은 인류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세계는 대국으로서의 중국과 미국에 대해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지켜주기를 믿고 희망하고 있어 절대로 하늘의 이치에 위배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3.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모두 평등하다. 강한 자가 나약한 자를 억눌러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고 낭비로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우리는 인도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의 마음이 짐으로 작은 나라 민중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해야하고 지구 생태에 생기가 넘칠 수 있도록 생태를 보호해야 한다.

4. 세계 자유민은 오늘날 양대국의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국면에 놓여있다. 지구를 살리려는 파리회담은 시작부터 핵심세력의 불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과 조선의 핵대립이 인류를 파멸 지경에 몰고 가고 있다. 이제 이원적 대립으로는 세계 거버넌스는 불가능해지고 제3의 축을 형성하고 3자 구조가 가야만 화해와 균형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이 인류와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이중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5. 오늘날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지구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위태롭다. 고통과 신음속에 사방으로 피난하는 피난민 들은 또 다시 핵무기 경쟁 속에 비린내나는 전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무절제의 핵무기는 인류와 지구를 능치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종말이 올 것이 분명하다.

6. 전 세계의 "민주 의회"를 결성하여 대국의 주도하는 대의민주주의인 "유엔"을 도와 석탄, 철강 공동체 모델을 따라 빅데이터 및 AI 관리를 통해 핵과 핵전쟁을 제어합시다. 인류의 영원한 평화 구조를 위해 평화 헌장을 만들고 대동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공동 발기인